

중국 수산물 소비구조와 전망

包 特力根白乙*

Consumption Structure and Prospects of Seafood in China

Bao Teligengbaiyi

< 목 차 >

I. 연구목적과 과제	IV. 중국수산물 소비의 특징
1. 연구목적	1. 수산물소비의 지역성
2. 연구과제	2. 어식문화의 독자성
II. 중국 수산물소비의 전개	3. 수산물소비재의 성격
1. 수산물 총소비와 배경	V. 중국수산물소비구조의 변화
2. 1인당 수산물소비의 추이	1. 개혁개방전의 수산물수급균형
III. 중국 수산물소비시장의 확대	2. 개혁개방후의 수산물수급균형
1. 유통시설정비와수산물 소비시장	3. 수산물소비구조의 변화
2. 소득수준향상과 수산물 소비	VI. 중국수산물소비의 전망
3. 수산물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	1. 수산물소비의 전망
4. 외식 및 중식(中食)소비의 신장과 수산물 소비	2. 수산물수급균형의 달성
	참고문헌
	Abstract

I. 연구목적과 과제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국 수산물소비의 전개 및 수산물소비시장의 확대를 파악하여 그 특질과 구조변화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13억의 거대한 인구와 최근 15년간 7%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접수 : 2006년 11월 2일 게재확정 : 2005년 12월 9일

* 중국 대련수산대학 경제관리학부 교수(Corresponding author : tbao@yahoo.co.jp)

중국은 장래 세계의 식량수급의 최대의 불확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 식량수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부각된 중국의 식량수급 증장기 예측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식량수요증대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개선에 의한 것이다. 현재 이 두 요소가 상승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는 식량 및 수산물을 포함한 부식물의 수요와 공급이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확대되고 있는 수산물 소비시장이 각국의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산물수요와 공급의 증대가 인접한 한국과 일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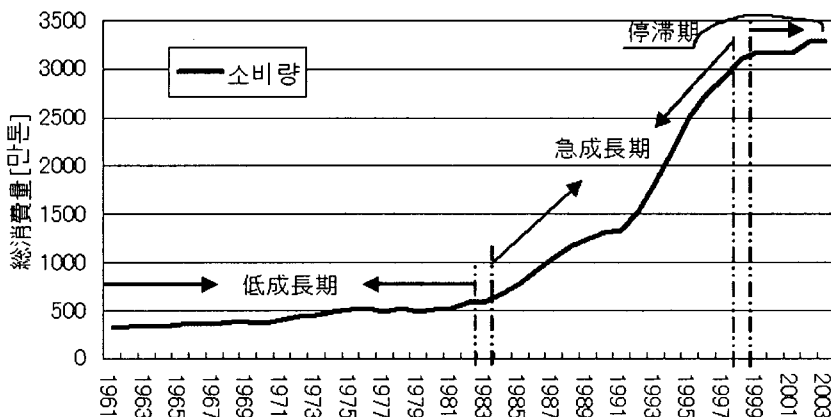
2.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과제로서 첫째, 중국에 있어서 수산물소비는 어떻게 전개되어 어떠한 배경이 있는가, 둘째, 중국에 있어서 수산물 소비시장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확대되고 있는가, 셋째, 중국에 있어서 수산물 소비는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중국에 있어서 수산물 소비에 어떠한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서 중국의 수산물소비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금후 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Ⅱ. 중국 수산물소비의 전개

1. 수산물 총소비와 배경

중국의 수산물 총소비는 < 그림2 - 1 > 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몇 가지 특징적인



資料 : FAO "FOOD BALANCE SHEET"에 의해 작성

< 그림 2 - 1 > 중국의 수산물 총소비량 추이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즉 1961년부터 1983년까지를 제1시기, 1984년에서 1998년까지를 제2시기, 1999년이후를 제3시기로 구분한다. 다음에서는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시기(1961~1983년)는 수산물 소비의 저 성장기이다. 이 시기에는 고도 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만연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가 정부의 계획 생산과 통제 관리 하에 있었다. 통제·배급제도는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대신한 정부가 행정계획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급균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급면에서는 생산자가 일정량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정매취가격이 설정된 한편, 수요면에서는 소비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억제를 달성하도록 하는 배급가격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가격은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을 유지시켰다.

저수준의 매취가격 설정은 어업자의 이익 감소를 초래했고, 장기간 저가격으로 공출되어 어업자의 생산 의욕이 억제되고 생산기반이 미약하게 되었다. 또한 수산물 공출계획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지령적 성격을 띄고 있어 그것이 자원 조건에 일치하는지 아닌지, 경제효율이 높은지 아닌지는 무시되고 획일적으로 생산자 책임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업생산구조는 형성되지 않고 어업생산력의 발전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는 어업생산이 저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수산물부족 현상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에서는 주요 소비재의 공급이 배급에 의해 정량 공급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이 도시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는 하였지만 경직적인 제도가 소비수요의 다양성을 창출시키지 못했으며 제도의 장기화는 소비시장의 성장을 저해했다.

그 결과 수산물 식용 총소비량은 1961년의 316.3만톤에서 1983년의 579.4만톤으로 증가했을 뿐이다. 그것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2.9%로 조금성장한 낮은 수준으로 동 기간의 수산물 생산량 성장률인 4.1%를 밀도는 수준이다.

제2시기(1984~1998년)는 수산물 소비의 급성장기이다. 제1시기부터 존속해온 농산물 통제·배급제도는 공정가격 수준을 낮게 했기 때문에 수산물의 수급실세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수산물 유통의 각 단계 또는 각종 가격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동 제도의 경직화 원인이었다.

그리고 1978년에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에 의해 1979년부터 1983년에 걸쳐 통제 유통제도의 재검토가 시도되었다. 우선 통제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통제제도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유시장의 전개가 통제 완화의 토대로 되었다. 그리고 통제 범위의 축소, 시장 메커니즘의 확대,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통제유통을 대신한 자유 시장유통이 추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개혁5개년」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 수산물 유통 다양화와 가격자유화는 1980년대 중반 및 1990년대

초반의 고도 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수산물 수요를 촉진시켜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시켰다.

한편 수산물 유통체제의 개혁에 의해 다양한 유통경로가 확립되었으나 집하단계에서 소매단계에 이르는 유통기구, 그 중에도 특히 중핵기관인 도매시장제도의 미정비, 유통주체의 영세성과 미발달 등의 문제에 의해 유통 비효율과 비용상승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생산체제의 낙후와 더불어 1980년대 중반부터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현저하게 진행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수산물 수급균형이 붕괴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1985년과 1988년을 정점으로 하는 두 개의 가격상승기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서민의 큰 관심을 모았다.

여기서 수산물 가격의 안정과 안정적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급능력의 상승과 유통 원활화를 통해 수산물 수급균형 정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이것이 「菜藍子프로젝트」(「菜藍子」라는 것은 부식물의 장바구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곡물공급을 나타내는 「米袋子」에 대응하여 부식물공급을 말한다)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동 프로젝트는 1989년 1월에 발족하여 1994년 걸쳐 확립되었다. 「菜藍子프로젝트」실시후 수산물 안정적 공급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그것이 도시에 있어서 수산물 소비를 안정적으로 확대시켰다.

그 결과 수산물 식용 총소비량은 1984년의 678.6만톤에서 1998년의 3107.5만톤으로 급상승하였다. 연평균성장율은 수산물 생산량 성장률의 12.9%를 밑돌게 했지만 11.5%라는 일찍이 볼수 없었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제2시기에는 수산물 공급이 대폭 개선됨과 동시에 수산물 수요도 급성장하였다.

제3시기(1999~현재)는 수산물 소비의 정체기이다. 수산물 소비가 정체한 배경에는 농촌 주민의 소득증가 둔화 및 물류시설의 미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수산물 식용 총소비량은 1999년의 3,172.7만 톤에서 2003년의 3,282.4만 톤으로 증가하고 이를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0.9%로 미비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런데 동시기에 있어서 수산물 생산량은 조금 성장한 3.4%였다. 실제 이 시기에 들어서 수산물은 충분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급되게 되어 계절적, 지역적, 구조적인 과잉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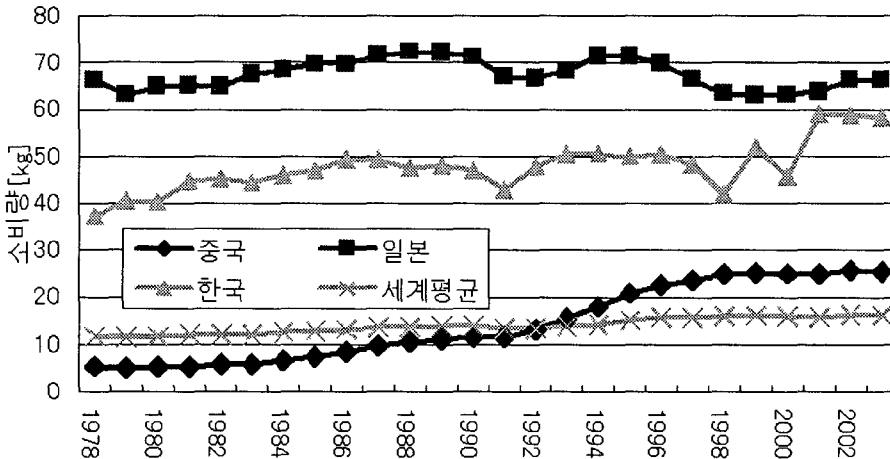
다음으로 비식용 소비를 포함한 국내 수산물 총수요를 보면 수산물 국내 수요량은 1978년 586.7만 톤이었던 것이 1984년의 1,168.3만 톤으로, 1997년의 3,913.8만 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연평균증가율로 환산하면 앞의 10년간은 평균 7.1%로 어느 정도 성장하였고 총생산량의 성장률인 9.7%를 밑돌긴 하였지만, 뒤의 9년간은 14.4%로 상당히 크게 성장하여 총생산량 성장률 12.7%를 상회하였다.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생산량에 있어서 국내 수요량의 비율은 97~98%이다. 이 중 국내 수산물 생산량에 있어서 식용소비량 비율은 71~

85%이고 1988년보다 1997년의 비율이 낮았다. 그 반대로 비식용 소비량은 상승하였다. 이것은 1985년 이후 양식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어분수요 및 가축배합사료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수산물 내수와 국내생산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양쪽의 격차가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1인당수산물 소비의 추이

중국에 있어서 1인당 어개류소비(고래와 해조류 제외)를 보면 <그림 2-2>와 같다. 1인당 어개류 소비량은 1983년에는 세계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8kg에 불과하였지만 1993년에는 15.4kg으로 2.7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균치(13.8kg)를 처음으로 웃돌았고 또한 2003년에는 25.4kg으로 증가하여 세계평균치(16.1kg)의 1.6배에 달하였다. 즉, 동년에 있어서 일본의 1인당 어개류 소비량은 66.2kg, 한국의 1인당 어개류 소비량은 58.3kg이었다.



資料 : FAO "FOOD BALANOE SHEET"에 의해 작성.

<그림 2-2> 중국에 있어서 1인당 어개류 소비량 추이

세계평균치를 초과한 양인 9.3kg만 집계하여 봐도 중국전체가 1,201.8만 톤으로 된다. 이것은 최고 성장기의 일본의 어업 총생산량에 맞먹는 규모이고 또 2003년의 한국과 일본 양국의 어개류 총소비량의 합계에 상당하는 양이다. 나중에 상세하게 서술하겠지만 공급조건만 구비되면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와 같은 수산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의 증가는 소득과 생산수준의 향상을 전제로 한 식생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중국수산물소비시장의 확대

1. 유통시설의 정비와 수산물 소비시장

1985년 3월 중공중앙국무원(中共中央國務院)이 「경제완화정책에 관련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지시」를 내린 것에 의하면 수산물은 전부가 제3류생산품으로 분류되어 그것을 국가가 구매하는 것을 일률로 폐지하고 그 가격을 개방하여 시장조절을 실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산물유통은 예전의 통제유통체제에서 시장유통체제로 전면적으로 이행되었다. 그후 안정된 시장경제 환경이 형성되고 가격과 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시정되어, 어민이 진정한 자주적 상품생산자로 되어 소득이 향상하고 생활이 개선되어 생산을 발전시키는 적극성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이러한 수산물 유통체제의 개혁에 의해 유통경로는 개통되고 생산자와 판매자가 직접 상담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호 왕래하고 동서간의 물류가 이루어지고 남북(南北)간의 조달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996년의 수산물의 상품량은 약 2,000만 톤(어민, 농민의 자가소비용 및 공업원료, 생사료는 포함하지 않음)에 달하였다. 그중 국유수산산업기업이 약 360만 톤(18%)을, 그룹 및 공동산업기업이 약 400만 톤(20%)을, 사영 및 개인산업기업이 약 680만 톤(34%)을, 수산가공기업이 약 240만 톤(12%)을, 어민과 농민의 직판이 약 320만 톤(16%)을 각각 경영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사영기업이 우세하게 되었다. 일찍이 10년전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영기업이 훨씬 우세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수산물유통분야에 있어서 각종 경영체의 활약이 수산물 공급을 충족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동시에 소비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유통의 확대를 가져왔다. 따라서 수산물유통 시설의 정비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전국의 수산물 도매시장수는 1995년에 262개(도시가 92, 농촌이 170) 있었는데 2003년에는 343개로 증가하였다. 그중 14개 도매시장이 중점시장으로 국가에서 지정하였다. 동 수준의 도매시장은 수산업의 경제적위치가 높은 것을 토대로 광범위한 집하·출하의 거점적 기능을 가지고 전국적 수산물 공급의 기지로 되었다.

이러한 도매시장제도의 급속한 정비가 물류·교통망의 정비, 콜드 체인의 정비와 더불어 수산물의 유통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수산물시장을 연안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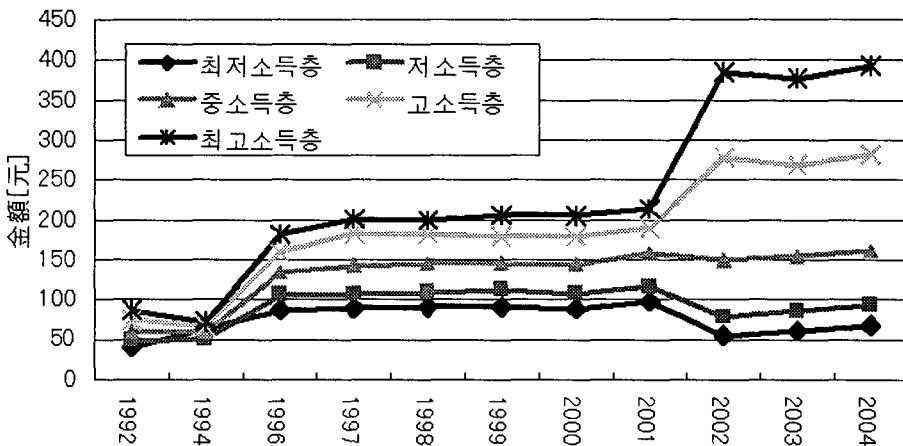
2. 소득수준의 향상과 수산물소비

중국에 있어서 수산물소비를 유지하는 제일 큰 요인의 하나로서 소득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소득수준이 수산물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도시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수산물소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통계연감」에 있어서는 도시의 소득계층을 최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최고소득층 등 5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단, 각 계층의 소득수준은 연도에 따라 다르다. 1인당 가처분소득을 보면 2004년에 있어서는 2,862 위엔(元)정도가 최저소득층(I), 4,429 위엔 정도가 저소득층(II), 8,167 위엔 정도가 중소득층(III), 14,971 위엔 정도가 고소득층(IV), 25,377 위엔 정도가 최고소득층(V)으로 대략 구분하고 있다.

각 소득계층별 1인당 수산물소비 금액의 추이는 < 그림 3-1 > 과 같다. 소득계층별 수산물소비 금액은 1992년부터 격차가 축소되어 1994년에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 후 조금 확대되었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조금 확대 기조로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도 2001년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고, 그 후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크게 확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소득층에 있어서는 소득에 의한 소비 격차는 크지 않지만 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는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2년부터 2004년에 걸친 소득계층별 수산물소비의 성장률을 보면 각각 최저소득층이 4.47%, 저소득층이 5.66%로 모두 조금 성장한 것에 비해 중소득층이 8.58%로 상당히 성장하고 고소득층이 11.7%, 최고소득층이 13.44%로 두 계층도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중국에 있어서 수산물의 소비수준은 확실히 소득수준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資料: 「中國統計年鑑」(各年版).

< 그림 3-1 > 중국에 있어서 도시부 계층별 1인당 수산물소비금액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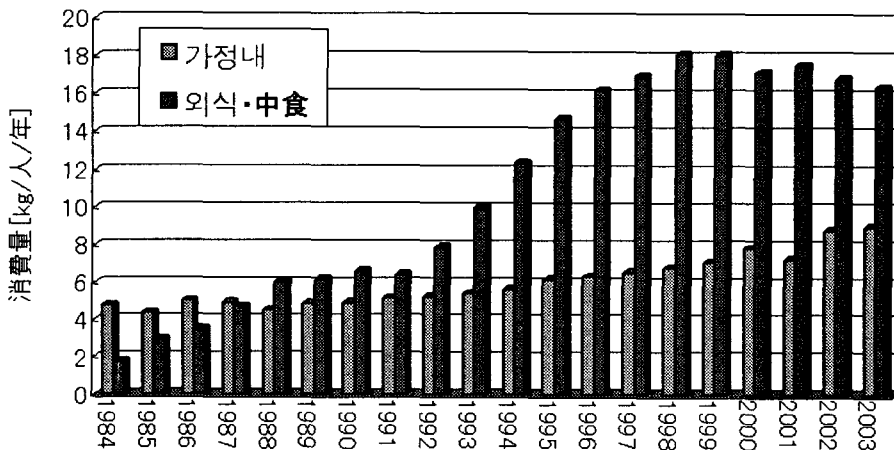
3. 수산물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

중국에서는 수산물이 어업생산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건강적 영양원의 제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생산기술의 확보와 유통의 정비에 의하여 소비품종의 수가 많아지고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 국민경제의 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의하여 소비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식생활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수산물에 대하여 수요의 양적확대가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요의 질적확대에도 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과로서 「식물연쇄의 단계에 올라가다」로 되었다. 여기에서 수요의 양적확대는 동일 계층상의 횡적 확장에 비해 수요의 질적확대는 종적 향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수산물소비량의 증가는 이상과 같은 수요의 이원구조가 나선식으로 승격한 결과이기도 하다.

4. 외식·中食소비의 신장과 수산물소비

중국의 수산물소비시장이 확대하는 가운데 외식·中食소비의 신장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과 그 1인당 수산물 소비량과의 차액은 외식·中食에 의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그림 3-2 > 는 외식·中食에 의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말에 수산물의 소비형태는 가정내 소비에서 외식 및 중식으로 전환하고 식생활변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외식·中食에 의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87년까지 가정내 소비 그 자체를 밀돌고 있지만 그 후는 역전하고 있다. 특히 1993년부터



資料 : FAO "FOOD BALANCE SHEET" 及び 『中國統計年鑑』.

< 그림 3-2 > 중국 외식·中食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의 추이

터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평균하여 내수 그 자체의 2.7배에 이른다. 이러한 수산물 소비의 확대는 주로 도시 또는 경제발달된 지역의 소비확대에 의한 점이 크다. 중국에서는 100만명을 넘는 대중도시는 40개 있다. 이들 도시는 유통인프라가 비교적 정비되고 게다가 거의 절반이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된 연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도시에 있어서의 수산물소비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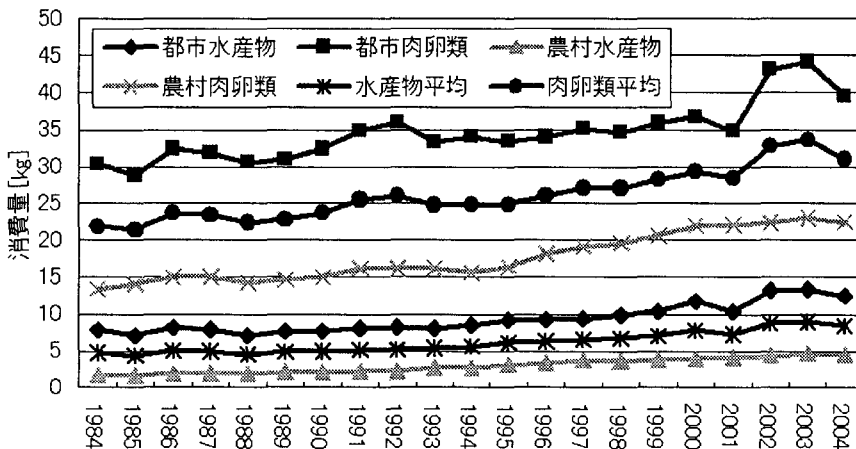
도시에서 있어서의 외식 및 中食은 중화요리점과 레스토랑 등에서 행해지고 접대와 선물 그리고 가족의 파티와 take out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 근거에 중국인은 식문화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과 대접을 받았으면 다시 대접을 해줘야 하는 전통적 접대문화가 있다. 때문에 사회의 집단적소비로서의 외식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중국에 있어서의 수산물소비는 도시의 가정소비를 중심으로 한 것과, 사회집단적 외식소비에 의한 것 등 몇 개의 패턴을 배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점이 중국의 수산물소비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Ⅳ. 중국수산물소비의 특징

1. 수산물소비의 지역성

성장하는 중국의 수산물시장이지만 그 성장은 꼭 획일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 수산물소비를 둘러싼 격차가 큰 것도 중국의 수산물소비의 지역성으로서 들 수 있다. 즉, 도시와 농촌간, 연안지역과 내륙지역간, 게다가 각성(省)·시(市)간에 있어서의 수산물의 소비수준이 많이 다르다.



資料：『中國統計年鑑』(各年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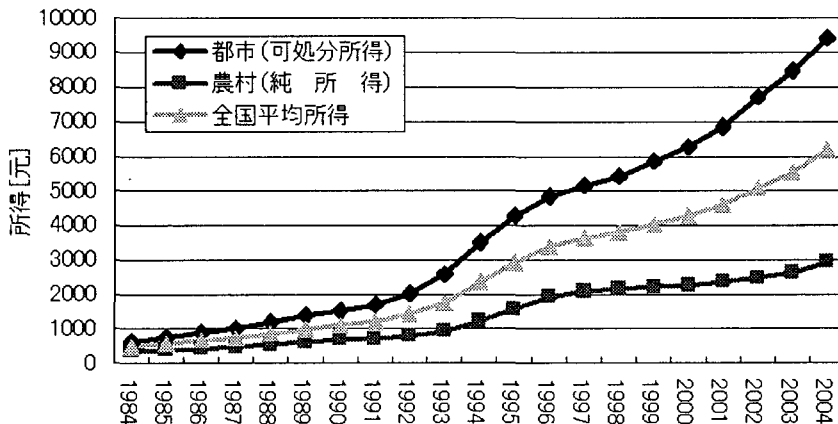
< 그림 4 - 1 > 중국에 있어서 1인당 수산물·육·계란 소비량의 추이

1984년 이래 1인당 가정내 수산물·肉卵類(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축육, 卵)의 소비의 상황을 본 것이 <그림 4-1>이다.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의 1인당 가정내 수산물 소비량은 1984년부터 2004년에 걸쳐 거의 평행선상태에 있다. 다만, 도시가 연평균 2.38%의 미세한 성장에 비해 농촌은 4.85%로 조금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1인당 가정내 肉卵類소비량을 보면 도시의 경우는 연평균 1.33%로 약간 성장한 것에 비해 농촌의 경우는 2.62%로 조금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이든지 농촌이든지 수산물 소비량의 성장률이 肉卵類를 상회하고, 또 수산물과 肉卵類에 상관 없이 농촌소비량의 성장률이 도시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요이론에 의하면 수요량은 소득, 가격 및 기호 등 3개의 설명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도시와 농촌의 세대원(世帶員) 1인당 소득의 추이를 <그림 4-2>에 표시하였다. 전국 평균으로 본 국민소득은 1980년대 중반 경제의 고도성장과 1990년 전후의 경제조정단계에서는 완만한 직선적 성장 패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후 1990년대 경제의 고도 성장에 의하여 급증하였지만 1996년부터는 증가의 정도는 점차 둔화하고 로지스틱 곡선에 상응한 S자 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농촌에 있어서의 순소득 증가속도의 급감과 도시에 있어서의 가처분소득 증가속도의 저하를 배경으로 한 결과이다. 또한 1999년 시점보다 도시의 소득성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농촌은 아직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내 소비수요와 그것을 설명하는 소득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1인당 소득의 증가에 의하여 가정내에 있어서의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의 수산물소비량이 농촌의 3.6배 이고 농촌의 2.3배에 해당하는 소득격차와 기본적으로 비



資料：『中國統計年鑑』(各年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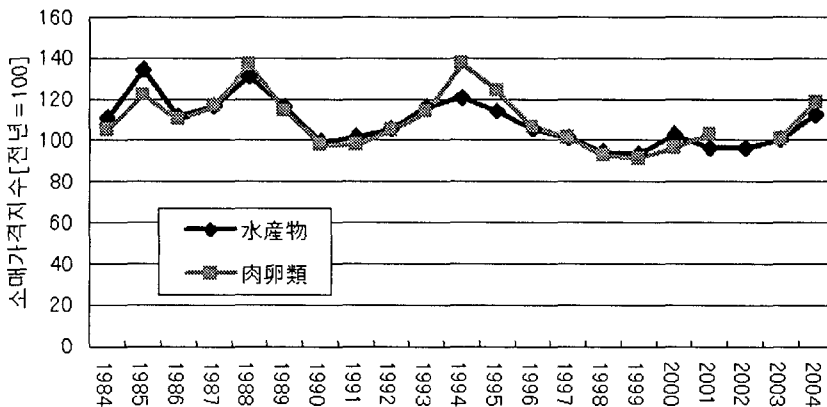
<그림 4-2> 중국에 있어서 도시 농촌세대원 1인당 소득의 추이

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사이에서 큰 소득격차 및 소비격차가 존재하며 질적 격차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도시에 있어서의 수산물의 소비추세는 담수어에서 海水魚로, 대중어종에서 고급어종으로 그리고 염간·가공품에서 선어·냉동품으로 한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 있어서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의 대부분은 담수어이고, 그리고 거의 전통적인 「4대가어(四大家魚)」(「四大家魚」라는 것은 백연, 초어, 잉어, 흑연을 총칭)이다. 해산물에 관하여 염간가공품, 혹은 일부 통조림류 등이 소비의 중심으로 된다. 특히, 운송조건에 제약받는 내륙에 있어서는 신선한 해산물은 냉동어에 지나지 않는다.

수산물·肉卵類의 소매 가격지수의 추이를 < 그림 4-3 >에 표시하고 있다. 수산물과 肉卵類는 소매가격에 있어서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 소매가격의 최고치가 경제고도성장기인 1985년과, 「물가폭등기」이었던 1988년과, 「식량인플레이」이었던 1994년 시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肉卵類가 연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해 수산물은 저하하는 경향으로 되고 다른 해는 거의 서로 겹치는 정도라고 말해도 좋다. 그리고 1998년과 1999년은 중국경제의 디플레이션 경향에 의해 수산물과 肉卵類의 소매가격의 성장률이 같이 마이너스로 변했지만 2003년부터는 약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내 소비수요와 그것을 설명하는 소득요인·가격요인을 가리키는 3개의 그림을 겹쳐서 생각하면 전국 평균으로 본 1인당 가정내 수산물소비는 일단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資料 : 「中國統計年鑑」(各年版)·

< 그림 4-3 > 중국에 있어서 水産物·肉卵類 소매가격지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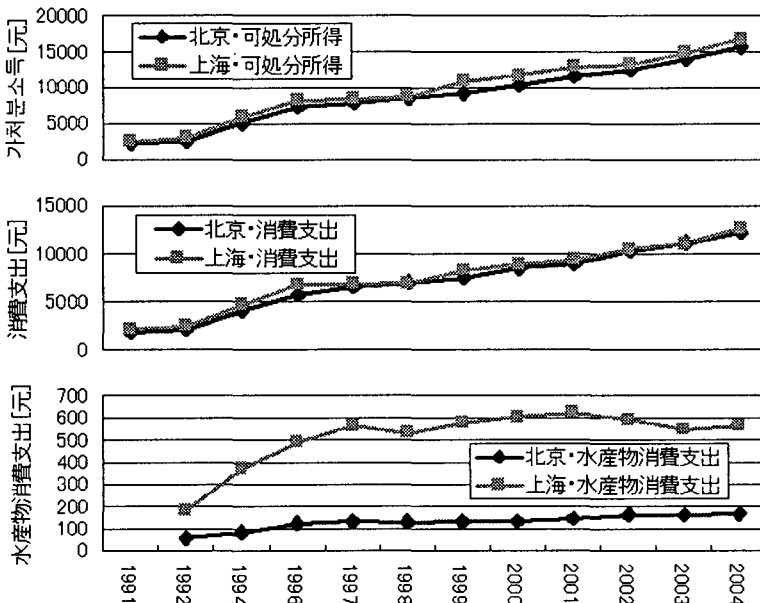
제1시기는 1984년에서 1989년까지의 시기이고 소득 증가를 유지하는데 관계없이 소매가격에 약간 영향 받아 1인당 가정내 수산물소비가 정체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제2시기는 1990년에서 최근까지이고 소득은 고도로 성장하고 소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된 유리한 조건하에 1인당 가정내 수산물소비가 완만하게 증가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를 예로 들어 내륙도시와 연해도시에 있어서의 수산물소비의 격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징시, 상하이시에 있어서 1인당 수산물소비지출금액 추이는 < 그림 4 - 4 > 의 하단에 나타내었다. 상단·중단의 1인당 가처분소득과 1인당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베이징시가 상하이시를 밀돌고 있지만 매우 접근하고 있으며 근년에는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소비지출에 있어서는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상하이시의 수산물소비지출이 2001년부터 정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베이징시의 3배를 훨씬 넘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바다에서 가까운가 어떠한가 라는 소재지의 거리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성향(가처분소득에서 소비에 이르는 비율)도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資料：『中國統計年鑑』(各年版).

< 그림 4 - 4 > 北京市·上海市에 있어서 1인당 수산물소비지출금액의 추이

2. 어식문화의 독자성

중국의 수산물소비를 고려할 때에는 그 어식문화의 독자성을 전념에 들 필요가 있다. 한국·일본을 비교할 경우 항상 지적되는 것이 중국에서는 담수어를 많이 먹는 문화가 있는 것, 또 海水魚를 포함한 활어요리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독자의 요리법이 발달하여 시각보다도 미각과 食覺이 보다 중시되고 있는 것 등의 특징이 있다.

또, 중국국내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미각이 크게 다르고 게다가 요리법도 크게 다르다. 일반적인 특징은「남쪽은 달게 먹고, 북쪽은 짜게 먹는다」,「동쪽은 맵게 먹고, 서쪽은 시게 먹는다」, 이러한 미각의 차이에 응하여 각 지역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생선 요리가 있어 각기 선도와 가공도에 대한요구가 다르다.

3. 수산물소비재의 성격

1인당 수산물소비량(D) 또는 1인당 가정내 수산물소비량(Q)에 있어서는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선정 및 추정은 지면의 관계로 생략한다). 그 중 I가 소득, P_s 가 수산물가격, P_n 이 수산물의 경합 상품인 肉卵類의 가격이다. 추정식 아래의 괄호내 수치는 회귀계수 각기의 t값, R^2 는 결정계수이다. 또한, 계측기간은 1978~2000년이다.

<1인당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 수요함수>

$$D_t = 7.5758 + 0.0062I_t - 0.0843P_{st} + 0.0650P_{nt} \quad \text{수식 1}$$

$$(3.4363) (30.9793) (-2.3089) (2.4309)$$

$$R^2 = 0.9926$$

<1인당 가정내 수산물소비에 있어서 수요함수>

$$Q_t = 5.8957 + 0.0007I_t - 0.0140P_{st} \quad \text{수식 2}$$

$$(12.1336) (16.5681) (-3.5084)$$

$$R^2 = 0.9745$$

수요함수①에 있어서 수요의 소득탄성치, 가격탄성치와 교차탄성치를 표본평균으로 평가하면 각각 0.650, -0.597, 0.459이다.

수요의 소득탄성치의 부호는 정의 부호이고 1인당 수산물소비에 있어서 수산물은 상급재(또는 정상재)이다는 것을 표시한다. 게다가 추정기간내에 있어서 수요의 소득탄성치는 0.650으로 수치는 크지만 1보다 작아 수산물은 필수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요의 소득탄성치는 1984년~1990년에 있어서 0.648이었지만, 1994~2000년에

있어서는 0.570까지 낮아져 수산물은 더욱 필수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중국경제는 1990년대에 고도성장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1인당 수산물소비에 있어서 수요의 소득탄성치는 과거(1980년대)보다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탄성치는 음의 부호이고 수산물이 필수품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또 수요의 교차탄성치는 정의 부호이고 수치가 크기 때문에 수산물은 肉卵類에 대하여 경합대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수요함수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 값과 가격탄성치를 표본평균으로 평가하면 0.206과 -0.278이다.

추정기간내는 소득탄성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가격탄성치가 0보다 작고 0에 가깝기 때문에 1인당 가정내 수산물소비에 있어서 수산물은 생활필수품적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 1인당 수산물 소비의 경우와 반대로 1인당 가정내 수산물소비에서는 수산물 소매가격지수가 하락에 의한 탄성치가 소득의 상승에 의한 탄성치를 상회한다.

1984~1990년에 있어서 수요의 소득탄성치와 가격탄성치는 각각 -0.003, -0.421를 나타나고 있지만 1994~2000년에 있어서 소득탄성치가 0.300까지 상승하고 가격탄성치가 -0.326까지 절대값으로 낮아지고 있다. 즉, 1인당 가정내 수산물소비에 있어서 수산물은 하급재의 성격을 가지고 필수품에서 상급재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요함수 수식 1, 2에 있어서의 소득탄성치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가 후자를 0.44%로 상회한다. 이것은 1인당 수산물소비에 있어서 외식·中食이 소득에 민감하며 또 외식·中食이 수산물수요의 잠재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V. 중국 수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중국에서는 어업의 자연조건과 사회·경제조건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내륙지역과 연해지역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또 각지의 생태유형도 다양하며 수산물의 생산구조도 많이 다르다. 따라서 수산물의 생산량과 종류에 대하여 모두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수산물의 수급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중국이 항상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과제이다. 그래서 「푸드·시스템」(수산물의 공급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종전과 같은 川上=어업, 및 「호수」에 비유할 수 있는 최종 수요를 기축으로 한 논술로는 과제에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川中=수산물도매업·수산가공업, 川下=수산물소매업·외식산업도 시야에 넣지 않으면 그림 전체를 그릴 수 없는 시각)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수산물의 수요에 접근해보겠다.

1. 개혁개방전의 수산물수급균형

개혁개방(1978년)전의 30년간 먼저 川上=어업이 발전하기 위한 자연조건은 비교적 뛰어나지만 합리적이고 유효한 개발이용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거시적 지도상의 문제이다. 즉, 장기간에 걸쳐 해양, 포획어업, 생산량, 생산이 중시되고, 반대로 담수, 양식어업, 생산의 질, 관리가 경시 받는 풍조가 존속하였다. 따라서 어선과 망 등의 漁獲努力量을 증가하는 것으로 수산물생산량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정착되어 근해와 내수면에 있어서 주요한 어업 자원이 현저히 파괴되었다. 동시에, 곡물 생산을 중점으로 하는「以糧爲綱」라고 하는 주식생산중시주의(主食生產重視主義)의 방침은 양식업에 큰 영향을 미쳐 양식업의 전개가 곤란해지는 국면을 형성해 버렸다.

그래서 1966년부터 1980년까지의 제3, 4, 5차의 「5개년계획기간」에 있어서 수산물의 생산량은 연평균 각각 0.93%, 5.97%, 0.49%로 성장하였다. 또한, 제4차 5개년계획기간은 증산이기는 하지만 남획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수산물 증가량은 178.6만 톤에 머물고 연평균 증가량은 단지 8.9만 톤이다. 그리고 1인당 수산물 할당량은 1960년의 5.1kg에서 1970년의 4.3kg으로 감소하고 그 후 1980년은 5.2kg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저수준에 머물렀다.

또 이 시기는 통제유통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비공유제 경제는 배척되고 국영사업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따라서 川中=수산물도매업에서 川下=수산물 소매업까지는 기본적으로 국영수산공급·판매기업에 의한 독점경영되고 수산물은 산지에서 소비까지 단일한 채널로 유통되었다. 따라서 수산물공급은 시장반응이 느리고 시장적응능력이 약하며, 「親方赤旗」(=「大鍋飯」)의식이 강하고 경영효율이 낮으며, 수급불균형 상황에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서는 川中=수산가공업은 가공방법과 선도유지기술 면에서 매우 낙후되었다. 1950년대에서는 염간가공을 중점으로 하고 선도유지는 주로 천연얼음에 의지하였다.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시작되어 냉동, 통조림, 간장조림, 건조, 훈제, 미립절임 등의 가공방법이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3년경제공황」과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수산가공업의 발전은 극히 완만하였다. 1970년대에서는 냉동창고, 냉동차, 냉동선이라고 하는 「3냉(3냉)」 건설을 추진하여 1978년 말까지는 42개의 국영 수산가공기업을 건설하였다.

또한 쥐취는 새로운 어획대상으로 많이 생산되었지만 생선판매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이 시작되어 수산가공업의 새로운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유지와 가공의 설비는 여전히 적고 냉동품은 총생산

량의 5%에 달하지 못하였으며 저품질 염간품의 비중은 커졌다. 그리고 매년 30~40만 톤의 어개류는 변질되어 부패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호수」= 최종수요를 보면 1인당 수산물소비는 1960년의 4.8kg에서 1970년의 4.5kg로 감소하고 그 후 1980년은 5.2kg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수산물소비량을 그 할당량과 비교하여 보면 소비량이 할당량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리고 할당량은 어디까지나 할당량으로 식용공급량과 같지 않고 그것에는 비식용용과 손실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공급은 얼마 궁핍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초반에 있어서 수산물 공급은 궁핍하였다. 1970년대후반에 근해 어업자원은 과도하게 이용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류생산량은 격감하고, 어획물의 질이 매우 나빠지는 한편, 내륙수면, 천해와 간석지의 양식자원이용은 불충분하여 양식어업의 발전은 완만하였다. 따라서 수산물수요 증대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전국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수산물 공급 불균형은 더욱 심해져 특히 대·중도시에서는 수산물의 공급 부족과 가격인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수산물 공급에 대하여 소비자는 불만을 표시하고 「물고기를 먹는 것이 어렵다」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2. 개혁개방후의 수산물 수급균형

개혁개방후의 28년간 川上= 어업을 포함한 수산업에 관해서는 1979년부터 「①자원의 보호와 증식 및 합리적 이용, ②양식의 발전에 주력한다, ③선도유지와 수산가공을 개선하고, 가공품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세 개의 목표에 따라 내부조절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는 「양식을 주로 하고 양식, 어로, 가공을 병행하여 각 지역의 조건에 응하여 각기 중점사업과 보조사업을 정한다」라는 발전 방침을 실행하였다. 그 다음 1997년에는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실행하는 전략적 방침을 확립하고 자원관리와 환경보호를 어업관리의 중점시책으로도 도입하였다.

전술의 정확한 지도사상과 방침 및 적정한 방향설정은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구조를 단기간내에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981년부터 2005년까지의 제6, 7, 8, 9, 10차의 「5개년계획」에 있어서의 수산물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10.9%, 11.1%, 17.1%, 6.9%, 3.09%로 성장하였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산물 증가량은 4,300.31만 톤이고, 연평균 증가량이 215.02만 톤이다. 그리고 1인당 수산물 할당량은 1985년의 7.57kg에서 1995년에 24.38kg으로 상승하고 게다가 2005년에는 39.25kg로 급증하였다. 또한 양식어업의 수산물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1987년에 포획어업과 거의 반반이고 그 후 2005년에는 66.51%로 역전되었다. 그래서 수산물생산의 중점은 「포획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행되어 생산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시기에 들어서서 유통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어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할당에 의한 구매」의 비율을 점차 축소하여 1985년에 이르러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수산물 가격은 시장의 수급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였다. 한편, 수산물 판매는 국유상업기업의 독점을 타파하고 국영, 그룹, 개인이 경영하도록 개혁시켰다. 따라서 川中=수산물도매업에서 川下=수산물소매업에 있어서 새로운 유통의 담당자로서 그룹 및 공동상업기업, 사영 및 개인상업기업, 수산가공기업, 어민과 농민의 직판이 등장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국영기업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사영기업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도시와 시골의 시장과 정기시장은 번영하고 상품이 충족하여 네트워크가 넓어져 개방적 수산물시장은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수산물 수급균형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서는 川中=수산가공업은 큰 발전을 볼 수 있다. 수산가공전문기업은 수산물냉장냉동기업, 식용수산물가공기업, 어분사료가공기업, 약품보건품제조기업과 수산가죽 및 공예품기업 등의 여러 형태로 발전하였다. 2005년말 시점에서는 수산가공업은 9,128개사이고 그 중 그룹기업 및 사영기업이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산물의 가공방법과 선도유지기술의 면에서 상당히 진전을 보여 식용수산물 가공품의 품목으로서는 냉동품, 염장, 훈제품, 통조림, 비닐포장, 어육, 조미가공품 등에 이르렀다. 이 들 수산가공품은 각계층의 수요를 만족시켜 많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수」=최종수요를 보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83년의 5.8kg에서 1993년에 15.4kg으로 상승하고, 2003년에는 25.4kg까지 급증하고 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그 할당량과 비교하여 보면 수산물 수급균형문제는 1980년대는 조금 개선되었지만, 1990년대는 크게 개선되어 수급균형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혁개방전에 발생한 수산물 공급이 수요에 응하지 못하는 모순은 1980년대 까지 계속되어 수산물은 할당구매가 어렵고 이입조달이 어렵고 도시에 있어서의 공정 가격의 수산물 공급은 더욱더 어려웠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양식어업의 약진과 더불어 「菜籃子프로젝트」의 실시에 의하여 수산물 수급균형의 경사는 크게 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 수산물공급은 지역에 있어서, 계절에 있어서, 품종에 있어서 과잉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3. 수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1980년 말부터 수산물 소비구조에 몇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 수산물 소비의 자리매김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80년대 말부터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주식으로서의 곡물, 신선한 야채의 소비량이 줄어들었으나 그 반면 肉卵類과 수산물의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두 번째, 수산물 소비의 고도화, 다양화다. 예를 들면 선어·활어의 소비는 1980년대 초부터 내수면은 잉어, 붕어, 가물치, 동남참게, 초어, 메기 등인 어종을 중심으로, 해면은 가자미류 등 일부 어종이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서 담수품종의 자라, 거북이, 농어, 송어 등 해면 품종은 닭새우, 연어, 전복, 황어, 가숭어 등으로 이동하였다. 이전에는 최저한의 수요량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산물생산은 양적 발전이 중시되어 수산물의 질은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산물 공급의 충족 및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질적 문제가 부상하여 저품질 수산물은 소비자의 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 수산물 소비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수산물 유통체제의 조정 및 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에 의해 내륙지방에도 광범위하게 수산물 유통이 전개되어 이전의 수산물을 먹기 어려운 지방에도 지금은 구입하기 쉽게 되었다. 예를 들면 티벳의 라사 농산물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수산물은 그 지방의 라사어 티벳메기, 게다가 내륙지에서 수송된 잉어, 붕어, 드렁허리, 자라 등의 선어, 활어가 있다. 그 가격은 내륙지보다는 비싸지만 공급이 충족되고 있으며, 티벳 소비자의 수요를 어느정도 충족시켜 수산물 시장은 하루하루 번영하고 있다.

네 번째,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도시인구의 비중은 1984년의 23.01%에서 1994년의 28.51%로 상승하여 더욱이 2004년에는 41.76%로 급증하였다. 그 중 대부분의 대·중형 도시는 연안지역, 양자강(揚子江) 연안에 자리 잡고 있다. 도시에서는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경향도 높고, 그리고 물류가 발전하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끊임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소비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생산과 유통 어느 쪽이 잘 대응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을 초래해 가격이 올라가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수산물 생산은 상대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유통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망의 정비 및 저온 수송의 발전이 필요하다.

Ⅵ. 중국 수산물 소비의 전망

1. 수산물 소비의 예측

중국의 인구백서 『21세기의 인구와 전망』에서는 「전국 본토의 인구를 2005년에 13.3억인 이내로, 2010년에는 14억인 이내로 억제한다」라고 목표를 세웠다. 이에 맞

중국 수산물 소비구조와 전망

추어 볼 때 중국 인구의 자연 성장률은 2001~10년에는 9.3%부터 8.7%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추정치는 UN의 인구예측 중간수준의 예측치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중국의 GDP대 소득 성장률의 대비는 1984년~2000년의 예측치로서 1 : 0.8이다. 계속되는 세계경기의 침체, 또한 전국 9.4억인 농민(전국인의 72%)의 소득 정체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2001~10년에는 GDP 대 소득 성장률의 대비를 1 : 0.5로 설정하는 것은 낮은 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수산물과 肉卵類의 소매가격지수는 실측치로 각각 93.6~134.3%, 91.1~137.2%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1~10년의 수산물과 肉卵類의 가격지수를 표본 데이터의 분포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에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9.0%, 국내 총생산(GDP)은 연평균 7.0%전후로 성장할 때, 1인당 소득이 3.4%로 성장하여 수산물과 肉卵類의 소매가격지수는 각각 그 표본의 평균치 110.4%와 109.9%에 수렴한 경우를 전제로 할 때 중국의 수산물 소비의 전망은 < 표 6 - 1 >로 나타날 수 있다.

즉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부터 2010년에 걸쳐 연평균 2.7%로 성장하고, 2010년에는 33.25kg에 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1971년 당시의 대만의 소비수준(34.34kg)에 가까운 수치이다. 또 수산물 식용 총소비량은 평균 3.6% 성장하여 2010년에는 4,606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 표 6 - 1 > 중국수산물 소비량의 전망

단위 : kg, kg, 만톤			
년도	1인당 소비량	1인당 가정내 소비량	식용총소비량
2001	26.14	6.69	3340
2002	26.93	6.78	3474
2003	27.72	6.87	3608
2004	28.51	6.96	3745
2005	29.30	7.05	3884
2006	30.09	7.14	4025
2007	30.88	7.23	4167
2008	31.67	7.32	4311
2009	32.46	7.40	4458
2010	33.25	7.49	4606

2. 수산물 수급균형의 달성

최근에 미래의 수산물 수급구조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개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았다.

첫 번째, 수산물의 공급 보장 문제다. 즉,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문제다. 중국의 수산물 수요는 국내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산물 수요를 만족

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급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개혁개방 이래 수산물 공급측면에서는 급격한 국내 시장의 확대, 성급한 외화 획득 목표, 외국기업의 경쟁으로 인해 자원상황을 무시한 생산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발해, 황해, 동해, 남해의 어업자원이 감소되고 어획물의 질도 악화되었고 남획문제가 지적되었다. 수산물 자원감소는 수산물 공급에 위협을 주어 수산물 수요를 압박하였다. 1999년 정부는 포획어업에 「영 성장」중산억제책을 제시하여 근해어업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발전을 향하여 한발 내디뎠다. 이로 하여 향후는 양식 주도의 안정 성장기로 이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양식 생산을 포함한 수산물자원의 관리가 시대에 요청되었다.

두 번째, 수산물의 수요 창출 문제다. 즉, 유효한 수산물 수요를 창출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수산물 수급균형상황은 1990년대에 계절적, 지역적인 공급과잉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수산물 공급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추궁하면 소비주체의 구매력에 관한 소득수준외에 소비객체에 있어서 유통과 가공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시장정보가 폐쇄되어 유통시스템이 완비되지 않고 가공과 종합이용순준은 높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요인들이 서로 작용하여 수산물 소비를 객체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수산물 수요창출, 그 중에서도 특히 중부·서부내륙의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책으로서 ①저온유통기구의 전개에 대처하여 생선어개류를 산지에서 내륙의 소비지까지 운반한다. ②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산가공품, 특히 브랜드품의 제조에 대처하여 편리한 즉석식품으로 기우는 사람들의 소비습관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의 실시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서 ①유통·가공시스템 정비의 조성과 투자 ②기업의 마케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또한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143번째 가맹국으로서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맹하였다. WTO가맹은 수산물 수요의 증대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중국의 수산물 가격은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낮고 가격상의 경쟁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수산물(외수)이 증가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수산물가공 능력은 낮고 열세에 처해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수산물가공품의 유입이 중국시장의 부족을 충당하여 수산물수요(내수)를 촉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包特力根白乙 『計量經濟モデルによる中國の水産需給構造に関する研究』kagosima 大學提出
博士論文. 2004年
- 包特力根白乙 「中國における水産需給問題 - 需給特性と需給構造をめぐって - 」(單行本)『水産
振興』第39卷 第4號. 2005年
- 包特力根白乙 「中國の水産需給動向に関する一考察 - 計量經濟モデルによる構造分析と將來
予測 - 」『漁業經濟研究』第48卷. 第1號. 2003年
- 包特力根白乙 「中國における水産物流通政策の轉換と今後の課題」『北日本漁業』第34號. 2006
年

Consumption Structure and Prospects of Seafood in China

Bao Teligengbaiyi

Abstract

Rapid economic development has led seafood consumption to its quality - oriented pattern as well as consumer's in China. This study concerns about The First, China is Seafood development background. The Second, China become emboldened seafood causes. The third, seafood consumption has characteristic. The fourth, seafood consumption has the organization of society.

The study shows that there are economic developmental periods Chinas has three time. The First time(1961~1983) is rapid growth. The Second time(1984~1998) is growth accumulate. The third time(1999~) is changing on seafood consumption as the consumption of seafood is changed according to economic variables changes in income, price, tastes and population. This changing pattern of seafood consumption is based on economic variables appears toward luxury and convenience seafoods.

Consumption of food is also affected by non - economic variables. The most typical non - economic variables leading to changes of seafood consumption is local, seafood culture, et...

Recently seafood consumption pattern shows that consumers paying more money to get their seafood preference for pursuing its hight growth and variety.

key words : seafood consumption, quality - oriented pattern, consumer's in China, Seafood development background, seafood culture
